

A S A N

2013

기업가정신포럼

창조경영시대, 한국형 기업가 모델 정립

일시 2013년 5월 30일 (목) 14:00 ~ 17:30

장소 서울대학교 SK경영관 슈펙스홀

주최 아산나눔재단, 한국벤처창업학회

후원 매일경제신문, 전자신문, 전국창업대학원협의회





아산기업가정신포럼
 창조경영시대, 한국형 기업가 모델 정립



PROGRAM

인사말 정진홍 이사장(아산나눔재단)
하규수 회장(한국벤처창업학회)

축사 정몽준 명예이사장(아산나눔재단)
오연천 총장(서울대)

주제발표

산업화 시대, 한국의 기업가 모델	하규수 교수(호서대)
벤처 시대, 한국의 기업가 모델	김도현 교수(국민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기업가 유형과 스탠포드 대학	양동우 교수(호서대)

토론

박재환 교수(중앙대)
정유신 사장(한국벤처투자)
문지원 대표(비키)
강원 교수(세종대)

특별강연

새로운 기업가 모델 정립의 방향	한정화 청장(중소기업청)
-------------------	---------------

인사말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배려의 마음을 가진
창업가들과
아산나눔재단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벤처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적 행위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이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저는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 벤처현상을 연구하시는 분, 벤처를 도와주시는 분과 벤처와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처럼 닫힌 보고(寶庫)의 문, 폐쇄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암호, 그럴 수 있는 주문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알리바바가 그 주문을 거저 알게 되지 않았습니디. 그는 무척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카심이 매우 못살게 굴었는데도, 이를 착한 마음으로 견뎌 냈습니다. 저는 벤처가 닫힌 문을 여는 주문을 얻으려면, 그 주체들이 자기 뜻을 착함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알리바바의 이야기는 주문을 외워 보고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 점철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알리바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잘 도와준 현명한 여중 모르지아나의 지혜 덕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 드리건대, 아산나눔재단은 닫힌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그 열린 문안으로 들어서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늘 모르지아나처럼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이 몫을 수행하는 것이 이 재단의 깊은 뿌리인 아산 정주영 회장님과 이 재단을 설립하신 정몽준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형 기업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이 모임이 우리 사회의 닫힌 이런 저런 문들을 한꺼번에 여는 '열려라참깨' 하는 외침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규수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정주영 회장님의
교훈을 본받아
모든 분들이
도전정신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솔한 난관들에 봉착했던 때를 아산 선생님의 "이 땅에 태어나서" 라는 자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 시절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을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산기업가정신 심포지엄이 어려운 경제, 비전 없는 시대에 꿈과 비전을 던져주는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포지엄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과 꿈을,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제주까지 전국적인 시리즈로 심포지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산 선생님께서 불모지에서 기업을 시작하여 오늘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산나눔재단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위축되고 희망이 메마른 젊은이들과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사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한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창업정신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창조경영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불과 40여년 전에 세워진 기업들입니다. 창업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척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흔히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 수 천 년에 걸친 왕정과 권위주의 통치 밖에 경험한 것이 없었고 식민통치와 전쟁을 겪으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것은 당시 상황에 맞는 기업가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 선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 교육 밖에 받지 못하신 분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많은 일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주간지 타임에서는 이렇게 한줄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He proved many people wrong."

저희 선친과 같은 1세대 창업가들이 다져놓은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규모가 10위권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신으로 출발하는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감히 할 수 없다고 여긴 영역에 도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영역과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임지에서 저희 선친을 묘사하면서 했던 표현대로 많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친 10주기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좋은 교육을 받으신 많은 젊은이들이 더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창업이 반드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성품이 아닌 새로운 것,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창업이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도전하는 도전정신, 역동성, 그 자체가 창업이고, 창업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이 포럼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한국형 기업가정신은 정주영 회장님을 닮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가정신이 단순한 상인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결코 아니고, 탐욕스러운 자본의 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인간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인간 존중의 바탕 속에서 진정한 기업가정신은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창의와 도전입니다. 집중적 사고, 그리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의 두 번째 요소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증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기업가정신이고, 우리는 기업가정신을 실현했던 많은 어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의 이 자리는 그러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를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이 포럼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진정한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하려면,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을 아산 정주영 선생님을 어떻게 닮을지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벤처기업의 효시를 정주영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때의 불확실성은 지금의 불확실성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건설, 자동차, 조선, 철강, 그리고 화학 부분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아산 선생님의 불굴의 투혼, 인간 사랑과 인재 발굴 능력을 배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기업가정신이 가장 세계적인 기업가정신이고, 가장 세계적인 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아산 선생님께서 이뤄내신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확인하고 이것을 확산시켜야 할 우리의 책무를 다짐하는 것이 오늘의 심포지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강연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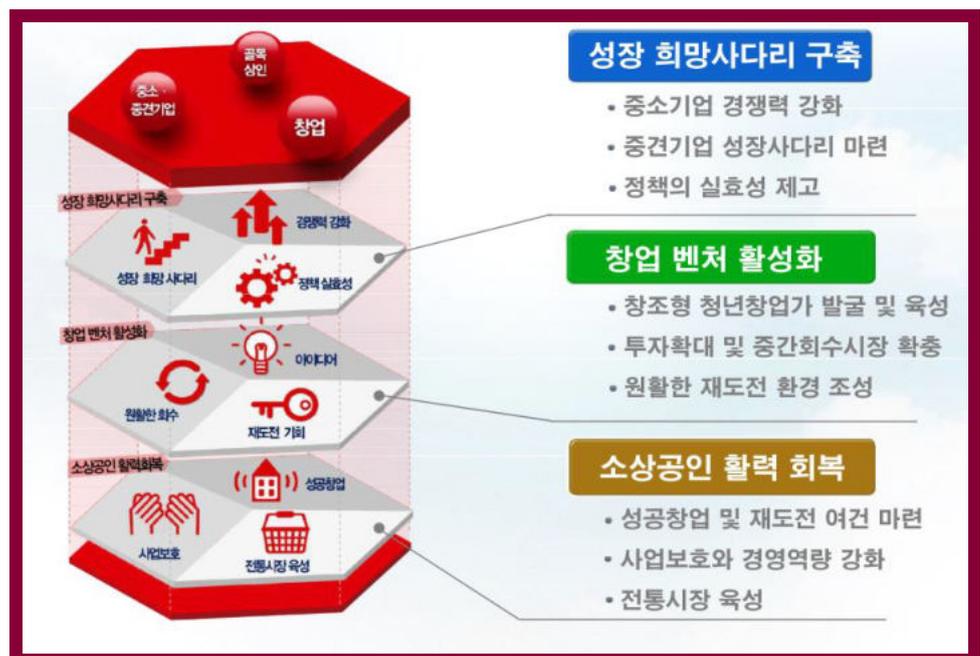


- 창조경제 구현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이며,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
 - 추격형 경제 성장 전략에서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필연적 과정
 - 소프트웨어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와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이 요구됨
 - 실패에 대한 관점을 패배와 낙오에서 혁신의 바탕으로 변화시킬 필요성 존재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원동력은 성취욕과 성공체험의 선순환을 통해 활성화 되었으나, 최근 창조적 도전정신이 약화되면서 기업가정신이 쇠퇴
 - '하면 된다' 라는 정신이 경제성장의 근간이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Frontier로 나서면서 Smart Follower의 이점이 소멸됨
 - 위험과 보상간의 불균형과 사회적 계층 이동이 약화되면서, 역할모델이 사라지게 되어 목표를 상실
 - 창의력과 자율성을 억제하는 교육과 정부의 역기능도 존재

-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창업 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중심 방향으로 삼고 추진 중

창업에서부터 대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선순환적 지원정책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 내 '자금 선순환' 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을 수립
 -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전문 엔젤투자에 대한 매칭 R&D 지원
 -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를 위해 M&A 관련 규제 완화,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을 육성
 -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 확대를 위해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성공 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을 확충
 -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시스템 도입과 같은 창업 플랫폼 구축, 우수 기술인력 유입 촉진, 기술보호 강화, 재도전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

- 중견기업의 성장통 및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
 - 세제, 금융, 인력 등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하도급 보호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가업 승계 지원을 확대
 - 중견기업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혁신 역량별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 R&D 지원 기반 확대, 성장 금융 강화,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및 장기 재직 지원을 추진
 -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 거래 불공정 개선과 같은 지원도 병행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 확보와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
 - 창업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성공 창업을 유도
 -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위해 창업정보 제공, 맞춤형 창업교육의 확대 시행 준비 중
 - ICT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줌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가능



A S A N
 기업가정신포럼

특별강연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주제 발표

산업화 시대, 한국의 기업가 모델 (하규수 교수)



산업화 시대
 대표 기업인인
 정주영 회장님은
 추진력, 도전정신,
 그리고 신뢰의
 기업가정신과
 효과성 중시
 경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창출하였습니다.

- 인류의 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0.01% 기간 동안 창출되었고, 경제의 진화는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공진화의 결과
 - 기업도 사회적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조직구조로 물리적·사회적 기술을 융합시켜 제품/서비스 형태로 부를 창출하는 조직
- Entrepreneur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람'으로 Say가 정의
 - 스펀터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내부로부터 과거의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상정
 -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몰입과 집중성, 결단력과 끈기, 위험 평가 및 대응능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 의식과 탁월성의 추구, 사업팀 구성 및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 제시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산업화 시대 대표적인 창업가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 기업가정신을 재조명
 - 부족한 기술과 경험을 학습하면서 시장 기회를 창출하여 사업을 성공시켜 왔으며, 불가능이나 한계를 인정하기 보다는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추진력과 도전정신을 보유
 - '사업보국'이라는 명제 하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가의 애국이라고 생각
 - 당장의 회사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신뢰와 신용을 지킴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마련
 - 부족한 기술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
 - 기술 축적 과정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수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
- 산업화 시대 기업가들은 효과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창조
 - 개별 산업내 기업의 성장성만을 중시하는 효율성 중심의 경영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업 성장을 창출
 - 우리나라 대기업의 다각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효과성 중시 경영에 있음

벤처 시대, 한국의 기업가 모델 (김도현 교수)



- 벤처시대의 기업가 유형을 시대별로 세분화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창업 기업가 유형은 장인형, 반항아형, 구도자형, 그리고 장학생형으로 구분 가능



- 장인 유형에 속하는 창업가들은 1990년대 이전에 기술기반 신제품을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한 엔지니어 및 연구원 출신이 다수를 구성

- 제품 개발 능력이 창업가들의 핵심역량으로 '국내 최초' 제품 (수입대체형) 개발에 주력
- 자본시장 및 벤처 생태계 부재로 창업초기부터 생존을 위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험난한 과정을 거침

- 반항아형은 안정적인 미래를 거부하고,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창업한 1990년대의 창업 기업가들

- 1990년대 후반에 창업한 이들이 대다수이나, 1990년대 초반에 창업한 기업가들도 존재
- 20대에 창업한 이들이 다수이며, 벤처정책의 수혜를 받은 최초의 세대로 창업 업종에서는 세계적 흐름과 동조화가 시작된 세대
- 자본시장의 활황을 타고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일부 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 위축 이후에 폐업한 사례도 존재

- 구도자형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환경 하에서 창업한 2000년대 초반의 창업가 유형

- 벤처버블 붕괴로 코스닥 시장 건전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창업한 세대
- 초기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진행의 속도가 느리고 고통스러운 성장을 경험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자들이 창업한 세대로 초기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상황 변화에 적응한 세대

- 장학생형은 최근에 창업한 기업가들로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해 성공한 최초의 세대

- 모바일 혁명을 통한 기회의 창 발생, 모태펀드 활성화, 선배 창업가들의 재투자, 민간지원체계 출범 등 구축된 벤처생태계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최초의 세대
- 유학, 다국적 기업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시각과 개방성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면서 창업에 도전
- M&A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회수전략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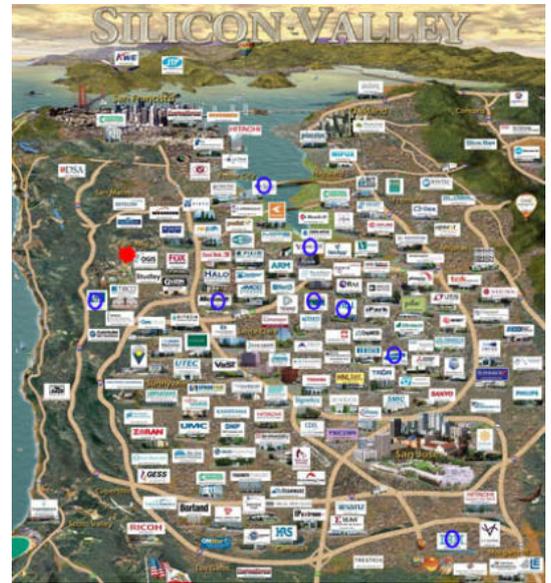
벤처 시대
기업가들은
장인형,
반항아형,
구도자형,
장학생형으로
유형화되며,
각 시기별로
차별적 성장과정을
보여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기업가 유형과 스탠포드 대학 (양동우 교수)



-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이 지식, 기술, 인력을 제공하면서, 산학연 협동과 인적 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허브 역할을 수행

- 스탠포드 대학 동문 기업의 연 매출액은 2조 7,000억 달러로 한국 GDP의 2.3배이며, 프랑스 GDP와 비슷한 수준
-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과 인큐베이터들이 초기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실패에 대한 높은 관용성과 개방성, 능력 및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의 문화가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



- 실리콘밸리는 예비 창업자들이 실패를 무릅쓰고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창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창업 문화를 형성시킴

- 투자 중심의 자원 동원 방식과 교육 방식의 차별화가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된 주요 요인
- 창업 실패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식하는 문화 덕분에 성공한 창업자는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 인력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유인을 제공
- Fail Con., 실패 이력서 등 실패의 자산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 제고에도 노력

- 기업가정신 교육에서도 스탠포드 대학은 전 학과와 학위과정에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학이 스타트업 사관학교 역할 수행

- 유명 창업가들을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수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주임교수, 벤처캐피탈리스트, 성공 벤처기업 임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초기 기업의 멘토로 참여하며, 철저한 능력 중심의 협업체제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글로벌화된 초기 기업 육성에 노력

-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대학은 창의·통섭적 인재와 혁신 기술의 공급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실리콘밸리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실패에 대한
관용성에 있으며,
대학에서부터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사장



- 창업가와 기업 경영자의 DNA는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후천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많으므로 지금 시대에는 창업가적 DNA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창업가들에게는 마케팅, 인재 유치 등의 과제가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의 수익모델이 가진 생산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임
 - 낙천적 성향, 주변을 설득하는 카리스마, 요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1분 스피치 능력도 창업가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신뢰는 창업가들에게 투자 유치 및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중요한 요소
- 창업가들을 보면 괴짜들이 많은데 일반인들과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특징이 창업가들에게 존재
 - 창업가들은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속성이 있어야 대중을 선도할 수 있음
 - 성공한 기업가들은 새로운 시장 및 산업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과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능력이 중요
- 제조업 및 B2B 산업의 창업가와 모바일 중심의 B2C 창업가 사이에는 산업 특성으로 인한 기업가 성향의 차이점이 존재
 - 제조업 창업가들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 상품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간에 여러 번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수익모델에 대한 확신, 끈기 및 지구력이 필요
 - 모바일 중심의 B2C 창업가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다수여서 사고의 유연성, 순발력, 타이밍이 중요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 기업가정신을 '기업가는 이윤을 남겨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하면서 가치 창출'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
 -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시대가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며, 변화하는 부분은 가치라고 봄
 - 가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돈을 지불하여 효용을 누리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됨
 - 창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이 떠오르는 가치에 대한 화두를 네트워크, 디지털, 융합, 상상, 창조, 지속 가능성, 동반, 공유, 복지, 감성, 즐거움, 글로벌화 등으로 요약 가능
- 우리의 기업가 모델은 현재의 시대화두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신은 정주영 회장이 보여주셨던 도전정신, 추진력 등으로 변화하지 않음
 - 변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역량을 학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인간 중심, 감성지향, 탄력성과 융합, 공유와 창의성 도출, 도전과 열정을 갖추고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
 - 기업가 모델은 진화될 것이며, 우리는 해외 사례를 넘어서는 모델로 진화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
- 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기업가적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 존재
 - 대학교육은 중앙일보 등 언론사에서 시행하는 대학평가에 의해 변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대학평가는 논문 수, 강의평가와 같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음
 - 대학평가 제도도 기업가적 역량과 창의력 증진과 같은 부분에 과감히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성 존재

문지원 비키 대표



-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싱가포르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이점을 느낌
 - 한국은 문화 자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
 -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도 모방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존재
-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겨도 말할 수 없는 문화로 인해 창의력이 발현되지 않는 현상 존재
 - 조직에서 복종부터 배우고, 다른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의사 결정자의 생각과 배치되면 복종부터 하는 문제점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산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같음
- 스탠포드 대학 같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으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를 첨가하는 것이 중요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



- 성공 벤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영 회장님을 닮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해서 사례발굴과 긍정적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
 - 성공한 기업가에 대해 사회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들도 기업가를 꿈꾸게 될 것임
 - 성공한 후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창업가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실리콘밸리 사례는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될까 우려 존재
 -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 모두가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스탠포드 대학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특성화한 사례일 뿐임
 - 스탠포드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우리나라도 대학들의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창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대학이 거의 유일한데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대학예산은 축소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조화



아산기업가정신 포럼
창조경영시대, 한국형 기업가 모델 정립

2013.05.30

아산나눔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총 6,00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글로벌 리더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였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초기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아산기업가정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사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씽크탱크 등에 매년 500명 이상의 인턴을 파견하여, 우리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탐방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프론티어', 해외 청년 봉사단도 운영 중입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아산기업가정신포럼



글로벌 기업 인턴



해외청년봉사단